

NEWS & NEWS

15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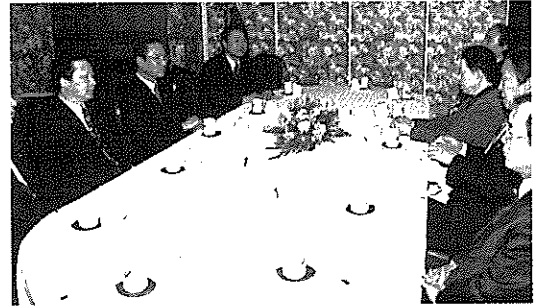
15개의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3월 22일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는 초등학교의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 인천 강화초등학교 등 전국 14개 시도, 1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며 올해 하반기 중 구강보건실 이용률 등을 평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확대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번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는 초등학교는 △대구 금포초등학교 △인천 강화초등학교 △부산 모라초등학교 △광주 송정초등학교 △울산 언양초등학교 △경기 화산초등학교 △강원 신철원초등학교 △충북 동광초등학교 △충남 청양초등학교 △전북 이리서초등학교 △전남 성동초등학교 △경북 진보초등학교, 철곡 초등학교 △경남 내동초등학교 △제주 한림초등학교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간담회

이기택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회장단은 지난 3월 15일 김모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기택 협회장은 구강보건과가 정부조직 구조조정에서 이전되거나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는 치협 집행부 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정부에 대한 치협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택 협회장, 임형순·정재규 부회장, 김석균 공보이사가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김모임 장관, 최선정 차관, 이종윤 사회복지정책실장, 송재성 보건정책국장, 강윤구 연금보험국장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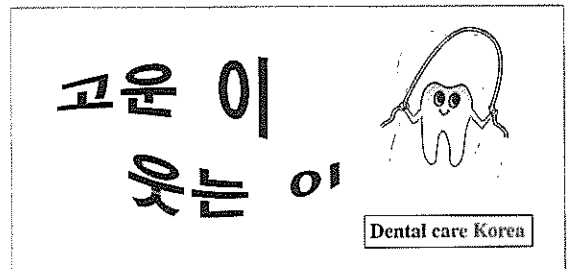


‘고운이 웃는이’ 구강건강 캠페인

치협은 3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중앙일보와 함께 ‘고운이 웃는이’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중앙일보 매주 수요일자 건강면 전면에 구강보건과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게재돼 그동안 어렵פות이 알고 있는 치아건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치협은 중앙일보와 지난 3월 24일 네티즌을 위한 인터넷 웹사이트(<http://dentalcarekorea.com>)를 개설하고 고운이 연예인 선발대회 등 이벤트를 개최하는 한편, 자기진단코너, 덴탈케어 상담실, 한국인과 치아코너 등이 개설돼 치아건강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치협은 기존의 이익집단적 이미지를 공공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로 부각시키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구강보건 행정의 확대와 효율화 등을 요구해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행정이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① 중앙일보 -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주최



노숙자 무료구강검진 실시

치협은 지난 3월 26일 서울 문래동에 소재한 '자유의 집'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무료구강검진을 실시했다.

치과위생사협회, 태평양화학, 진형종합상사의 후원으로 실시한 이날 행사에는 김석균 공보이사 등 치과위생사 5명과 치과위생사 6명이 참석하여 노숙자 2백여명이 구강검진을 받았다. 검진을 받은 노숙자 대부분은 고질적인 치통이나 이가 없는 경우, 또는 치주질환 등 갖가지 구강질환으로 음식을 먹기 어렵거나 고통에 시달리는 사례가 주종을 이룬 것으로 검진결과 나타났다.

자유의 집 윤병삼 생활지도부장은 이같은 의료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노숙자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구강검진을 마련해준 치협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